

다이소, 작년 연매출 3조 돌파... '뷰티 상품' 성장세 견인

2022년 대비 화장품 매출 160% ↑
에이블씨앤씨 등 협업제품 쏟아져
"뷰티 부문, 성장동력 자리매김"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가운데, 관련 업계는 다이소가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3년 매출은 3조4605억원, 영업이익은 26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7.5%, 9.4% 증가한 규모다.

다이소는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다이소는 앞서 2015년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2019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 2022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뷰티' 부문이 다이



어퓨 '더퓨어 티트리'

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8월 기준 다이소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160% 성장했다.

다이소는 지난 2022년 4월 네이처리퍼블릭과 협업해 '식물원'을 출시하며 뷰티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다이소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코스메틱의 앰플 '리틀샷'은

초도 물량이 2주 만에 완판되는 등 다이소 대표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이블씨앤씨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와 협업해 선보인 '더퓨어 티트리'가 다이소 뷰티 흥행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어퓨는 지난 2023년 7월 출시한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8개월만에 33만 개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퓨 '더퓨어 캔디'

/에이블씨앤씨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은 토너 패드, 에센스, 스팟 세럼, 수딩 젤 크림 등 8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티트리잎 추출물과 벤피올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해 사춘기 피부 고민을 가진 1020세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더퓨어 티트리 '스팟 세럼'의 경우 지난 3월 일시 품질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이소는 색조 화장품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어퓨는 지난 3일 다이소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더퓨어 캔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어퓨는 틴트, 컬러밤, 워터치 크롬 3종으로 메이크업 제품 수요 공약에 나섰다. 무엇보다 모두 균일가 3000원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가성비 전략'으로 판매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별화장품의 화장품 브랜드 '입큰앤드'도 최근 다이소에서 쿠션, 블러셔, 파우더 등 11종의 상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입큰앤드는 지난 2023년 5월 프라이머, 베이스, 블러팩트 등을 기본 메이크업 제품군을 한 차레 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다이소의 가격 정책에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다이소 브랜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6조 건기식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제품 다각화 '구슬땀'

홍삼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 활용
신제품 출시·해외시장 개척 활발

유통업계가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품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앞세워 급격한 성장 추세인 6조원 규모 건기식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라엘은 여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엘 밸런스에서 여성 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선보였다.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한다. 라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질염의 판단 기준인 누젯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질 내 유익균은 증가하고 질 분비물 및 소양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엘

났다는 것이 라엘 측의 설명이다.

라엘은 여성 질 건강과 함께 요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요로건강 크랜베리'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로건강 도움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프랙탄 크랜베리 분말'이 담겼다.

아울러 라엘의 '월경케어 보라지유'는 월경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영

향 성분 6종을 포함한다. 보라지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월경 전 여성들이 겪는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놴다. 바이탈뷰티는 올해 2월부터 소아과, 피부과 등에서 '우먼밸런스'와 '신바이오틱스'를 단독 판매하고 있다.

바이탈뷰티의 '우먼밸런스'는 감마리놀렌산, 히알루론산,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등을 주원료로 한다. 특히 비타민D가 일일 섭취량의 500%나 함유됐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비타민D를 단품으로 섭취하던 여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바이탈뷰티의 유산균 제품인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넣어 유익균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두 가지 원료 모두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 함량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의 기능성 원료를 수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RHT3201'을 태국 식품의약품에 식품 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RHT3201'은 유산균의 일종인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사균체 형태로 가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피부 면역과 관련한 기능성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한 원료 사업을 비롯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의 완제품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판피린, 감기약 'K-BPI' 1위

동아제약의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이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판피린이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감기약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판피린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 및 애착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올해 63주년을 맞이한 판피린은 현재 약국용 액상 제형의 판피린과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 2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신라면세점이 바오 패밀리 굿즈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호텔신라

한미약품, mRNA 치료제 등 8개 신약 연구결과 공개

美 암연구학회 학술대회 참가
이중 항체 등 새로운 접근방식 제시

한미약품이 신약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10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mRNA 치료제, 선택적 저해제, 이중 항체 등 암치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mRNA 플랫폼 기술'을 응용해 암 유발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p53-mRNA 항암 신약'과 'KRAS mRNA 항암 백신'의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표적 항암제'로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IRE1α RNase 저해제 'HM100168' ▲YAP/TAZ-TEAD 저해제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약품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은 이를 방광암, 비소세포 폐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HM100168'도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유방암 세포주에서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보였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면역 항암제' 영역에서는 'HM16390', 'BH3120' 등 한미약품만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HM16390'은 한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이다. 한미가 개발한 '랩스커버리'는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약효 지속성을 개선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또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BH3120'에는 '웬탐바디'가 적용됐다. '웬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이다. 이에 따라 'BH3120'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포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도 융합해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라면세점

'바오 패밀리' 굿즈 선봬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여행의 계절 봄을 맞아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선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이용 고객들을 위해 ▲신라면세점 단독 '바오 패밀리' 굿즈 판매 ▲'데코트리'의 오타니 선수 사인 핸드 타일 증정 ▲'시효'의 나의 앰플 찾기 서비스 등 참여 이벤트를 확대했다.

이번 바오 패밀리 굿즈는 ▲사이즈별 인형 ▲패브릭 포스터 ▲엽서 세트 ▲배지 등 17종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